

제공일자	2008. 6. 17(수)	담당자	서대교 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수석(3775-9051)	연락처	3775-4452	총 2 매

제목 :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 위해 현지국 규제시스템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험연구원 서대교 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진출 현지국 규제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08년 금융중심지법의 시행 및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설립 등과 같은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외국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용이해졌으며, 이들 외국사의 국내 보험시장 점유율도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국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며, 아직까지 국내 보험산업은 초보적인 글로벌화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현황 및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 국제기구와 더불어 보험 관련 국제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등 유망성장지역의 국가들 보다 보험시장의 개방정도가 높기 때문에 유망성장지역 진출 시에는 국가 간 마찰을 줄이고 영향력을 높이도록 도하개발아젠다(DDA)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제보험감독자협의

회(IAIS)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보험위원회 같은 보험 관련 국제기구에서는 보험규범 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하려는 현지국의 진입규제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보험 관련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제안했다.

둘째, 쌍무적 협력을 강화하여 진출 현지국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주요 투자대상국과 쌍무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투자대상국과의 보험회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투자대상국의 보험 시장구조 및 진입규제와 관련된 중요 문제들을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국가 간 중복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하여야 한다. 즉, 한 국가에서 감독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감독을 면제해주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수준과 내용이 유사 또는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먼저 이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내 보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센터 내 보험 전담부서가 설립되면 이를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보험규제 관련 정보는 물론 보험시장의 기초정보, 보험시장의 성장성, 수익성, 위험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할 경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의 경쟁압력을 벗어나기 위한 해외시장의 개척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들이 실행될 경우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첨부 :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요약자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